



정읍시와 인근 고창군이 생태와 관광을 접목한 자연친화적 관광을 위해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늘린다. 사진은 내장산 내 월영습지.

“생태관광 뜬다”... 정읍-고창 기반시설 착착

정읍 월영습지 복원 나서 고창 운곡습지 에코촌 조성

정읍시와 인근 고창군이 생태와 관광을 접목한 자연친화적 관광을 위해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늘린다. 정읍시는 국립공원 내장산 주변의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려고 국비 포함 300억원을 들여 내장호 일대에 생태탐방연수원과 생태관광타운을 만들고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월영습지 복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정읍시와 국립공원 내장산사무소는 내장산 입구 옛 사슴목장 자리에 2018년까지 국비 등 150억원을 들여 생활관과 체험시설을 갖춘 생태탐방연수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습지보전법에 따라 2014년에 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월영습지

도 새만금환경청과 함께 60여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습지를 복원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여러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읍시는 또 73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내장호 일대에 생태관광타운을 조성, 생태탐방연수원·내장수목원·조각공원·자생식물원·단풍생태공원·위터파크를 잇는 생태·문화시설 연계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도 총 사업비 108억원을 들여 단계적으로 생태계 복원과 생태관광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나선다.

고창군은 2018년까지 35억원을 들여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운곡습지 주변의 용계마을 일대에 친환경 숙박·관광·휴게시설을 갖춰 체류형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에코촌’을 조성할 계획이다.